Entertainment

유연석, 데뷔 첫 해외 팬미팅

연기자 유연석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팬미팅을 연다. 유연석은 18일 일본 도쿄의 타마가와 구민회관에서 '행복의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일본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일본에서 첫 공식 팬클럽을 창단했다.



연예뉴스 스테이션

강인, '음주운전 사고' 검찰 출석 조사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김영운·31·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인은 15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매니저와 함께 도착했다. 이날 강인은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5인조 비스트, 7월 3집 '하이라이트'로 컴백

5인조로 팀을 재정비한 비스트가 7월 새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5일 "비스트가 7월4일 정규 3집 '하이라이트'로 컴백한다"며 "2013년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정규앨범"이라고 밝혔다. 특히 4월 멤버 장현승이 멤버들과 음악적 이견으로 팀을 탈퇴하고 5명으로 활동하게 된 비스트의 첫 앨범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소속사 측은 "데뷔 후 7년을 거치면서 멤버들의 음악적 성장을 느낄 곡들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비스트는 일본에서 투어 '게스 후?'를 진행하며 앨범 막바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에릭 클랩튼, 말초신경장애 악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71)이 신경계통 질환 악화로 인해 기타 연주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한국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에릭 클랩튼은 한 음악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경계 이상의 하나인 말초신경장애를 앓아 기타를 연주할 때마다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어 버스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 아무래도 더 이상 연주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영화 '곡성' 5월 박스오피스 1위 582만명 동원



영화 '곡성'(사진)이 5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6년 5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곡성'은 582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5월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위는 '캡틴 아메리카:시빌워'(567만명), 3위는 '엑스맨:아포칼립스'(184만명), 4위는 '탐정 홍길동:사라진 마을'(142만명), 5위는 '앵그리버드 더 무비'(46만명)가 각각 차지했다. 흥행작 10위권에 한국영화와 미국영화는 4편씩 포함됐고, 아일랜드 영화 '싱 스트리트'와 대만 영화 '나의 소녀시대'도 자리 잡았다. '곡성'의 흥행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극장 관객수는 1810만명이었다.

책 랭킹

1위 책 정보보기

6월 1일~6월 7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채식주의자	한강
2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혜민
3	종의 기원	정유정
4	소년이 온다	한강
5	흰	한강
6	미움받을 용기. 2	기시미 이치로
7	애프터 유	조조 모예스
8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9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10	원피스. 81	오다 에이치로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I.O.I 사례처럼…협업하는 연예기획사

연기 매니지먼트사 합동 신인홍보
가수 매니저들은 협의체 조직 추진
kt뮤직엔 SM·JYP·YG 등이 주주

기획사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뭉치고, 뜻을 모으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미덕은 과거부터 있던 일이지만, 최근의 현상은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연기자 전문 매니지먼트사 8곳이 신인을 함께 키워보자며 '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나무엑터스, 스타캠프202,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싸이더스HQ, SM C&C,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윌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8개 기획사는 각 1명씩 신인 연기자를 '별 프로젝트'(사진)에 참가시켰다. 13일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며 시작을 알린 '별 프로젝트'는 17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동영상 플랫폼 V를 통해 연기 연습, 오디션 준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상물을 순차적으로 내보내면서 그들의 매력을 보여준다.

가수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매니저들은 현재 협의체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가수와 매니저들의 권익 보호와 매니지먼트업계의 건전한 풍토 조성 등을 위해 약 300명의 매니저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단 나이와 경력에 제한을 둬 진입장벽을 높였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매니저는 "일부 자격 없는 매니저들의 가수 지망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등으로 매니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다"면서 "가요계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기자 매니지먼트 업계는 이미 대중문화예술인과 매니지먼트업계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착을 모토로 한 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결성했다.

현재 가요계에서 핫한 존재로 꼽히는 프로젝트 걸그룹 I.O.I도 9개 기획사가 뭉쳐 만든 공동작품이다. 국내 46개 기획사가 엠넷 '프로듀스101'에 연습생을 내보내 9개 기획사의 11명이 최종 선발돼 I.O.I로 활동 중이다. I.O.I로 인해 기획사 관계자들은 '협력'의 미덕을 체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연예기획사간 협의체를 만든 일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SM·JYP·YG·스타제국 등 6개 음반기획사는 2008년 'KMP홀딩스'란 이름으로 뭉쳐 자체적으로 음반을 유통했고, 2012년 kt뮤직에 합병되면서 6개 기획사가 현재 주요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애프터스쿨, 세븐틴이 소속된 플레디스, 산이 버벌진트 등 브랜뉴뮤직, 에일리 배치기 등이 소속된 YMC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서로 소속 가수들의 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성시경과 빅스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김병선 대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사회적 비중이 커지고 내부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모두가 올바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영화 '군함도'의 주인공 황정민(오른쪽)과 연출자 류승완 감독. 사진제공 | 외유내강



송중기 소지섭 이정현

황정민·류승완, '1300만 흥행' 닻 올렸다

'부당거래''베테랑' 흥행 콤비
청주 인근서 '군함도' 첫 촬영
송중기·소지섭·이정현도 출연

'1300만 흥행 파트너'로 통하는 배우 황정민과 류승완 감독이 세 번째 합작에 돌입한다. 이들이 다시 뭉친 영화 '군함도'(제작 외유내강)가 17일 닻을 올린다.

'군함도'는 앞서 '부당거래'와 지난해 1341만 관객을 모은 '베테랑'으로 연달아 성공한 '흥행 콤비' 황정민과 류승완 감독이 일찌감치 재회를 확정한 영화다. 제작비 100억원대 대작인데다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함께 그린다는 사실에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황정민과 류승완 감독은 17일 충남 청주 인근에서 첫 촬영을 시작해 이어 전남 소록도, 부산 등에서 초반 촬영을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 시기에 돌입한 영화는 7~8월을 거쳐 가을까지 대규모 촬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의 주요 무대가 일본의 강제징용이 이뤄진 외딴 섬 하시마와 바다 속 광산인 만큼 야외촬영 분량도 상당해 어느 때보다 험난한 대장정을 예고하고 있다.

'군함도'는 류승완 감독과 황정민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의견을 나누며 의기투합했다. 황정민은 "역사를 정확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영화로 보이고 싶다"며 각오를 다져왔다.

앞선 작품들처럼 황정민과 류승완 감독은 이번 '군함도'에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최근작 '베테랑'이 사회 부조리를 향한 통쾌한 응징이었다면, '군함도'는 아픈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군함도는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이 자행된 실제 섬 하시마다. 이 곳은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여러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당대의 모습을 스크린에 재현하는 제작진의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제작진은 기획 단계에서 하시마 인근 취재 등을 추진하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대로 중국에선 일찍부터 고무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는 '군함도'는 현재 한중 동시 공개도 추진 중이다. 류승완 감독은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기보다 보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기획했다"며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서구인의 역사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군함도'에는 황정민 외에도 송중기와 소지섭, 이정현이 주연으로 참여한다.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로 군함도에 모인 조선인을 연기할 이들은 류승완 감독과 처음 손잡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닥터스' 박신혜, 야생미 넘치는 걸

반항기 가득한 불량학생 캐릭터

"지금까지 연기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다."

SBS 새 월화드라마 '닥터스'의 여주인공 박신혜가 연기 변신에 나선다. 전작인 '피노키오' '상속자들' 등에서 보여준 마냥 밝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막무가내에 야생미 넘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동안 또래 연기자들과 귀엽고 발랄한 모습으로 호흡을 맞췄다면 이번엔 선배 연기자 김래원과 멜로 연기도 펼친다.

'닥터스'에서 박신혜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재혼 후 마음의 문을 닫은 반항기 가득한 불량 학생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김래원을 만나 서서히 성장해가며 의사가 되는 인물이다.

박신혜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열린 '닥터스' 제작발표회에서 극중 캐릭터가 자신과 "많이 닮아 표현하기에 좋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연기하면 되겠다고 말할 정도란다. 또 이종석('피노키오'), 이민호('상속자들')등 또래 연기자들과 연기를 펼쳐 온 그는 김래원과 함께하는 호흡에 대해 "예전부터 김래원의 팬이었다. '오빠'라고 부르며 기댈 수 있는 배우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게 색다르다. 뭔가 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혜(왼쪽)가 SBS 새 월화드라마 '닥터스'를 통해 말괄량이 이미지를 벗고 김래원과 로맨스 연기를 선보인다.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두 사람이 환히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드라마 예고편 속 박신혜가 김래원에게 날렵한 발차기를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12시간 동안 촬영한 장면에 대해 김래원은 "(박신혜의 발차기로 인해) 아직도 왼쪽 허벅지에 시커먼 멍 자국이 있다. 발로 차면서 뒤로 텀블링을 하기까지 해 깜짝 놀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사냥' 크라우드 펀딩, 관객 300만 넘으면 51% 수익

저예산영화에서 상업영화로 확대
작품 홍보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관객이 영화에 투자하는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기부 형식의 후원형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익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원한다면 누구나 상업영화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29일 개봉하는 안성기, 조진웅 주연 '사냥'이 13일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고 단 하루만에 300여명으로부터 목표액 3억원을 모았다. 마케팅 비용 마련을 위해 이번 펀딩을 진행한 '사냥' 측은 예상을 웃도는 관객의 참여 덕에 당초 21일까지 진행하려던 계획을 불과 하루 만에 마쳤다.

'사냥'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는 영화가 손익분기점인 관객 164만명을 돌파한 순간부터 누적관객수에 따라 책정된 비율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180만명을 동원할 경우 투자 수익률은 5.7%, 300만명이 넘으면 51.0%에 이른다.

4~5년 전부터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은 그동안 제작비 마련이 절실한 저예산 영화나 사회정치적 이슈와 연관돼 어려움을 겪는 작품이 주로 선택해온 방식이다. 올해 2월 개봉해 358만명을 모은 '귀향'도 비슷한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업영화들도 크라우드 펀딩에 눈을 돌리고 있다. '사냥'에 앞서 이정재 주연의 블록버스터 '인천상륙작전'은 5억원을 목표로 펀딩을 진행해 목표치를 모았다.

이처럼 제작비가 100억원에 이르는 대작까지 크라우드 펀딩에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이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소속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작품의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다.

'사냥'의 크라우드 펀딩을 담당한 와디즈의 한 관계자는 "기관이나 기업에 집중돼 있던 문화 콘텐츠 투자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개봉영화를 향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바이럴 마케팅 수단으로도 주목받는다"고 밝혔다.

펀딩 활성화로 관련 이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간첩 조작 사건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은 가을 개봉을 목표로 비용 마련을 위한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8월31일까지 2억원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15일 현재 2700명, 6250만원이 모였다. 후원형 펀딩으로는 이례적인 열기다.



영화 '사냥'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빅스톤픽쳐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